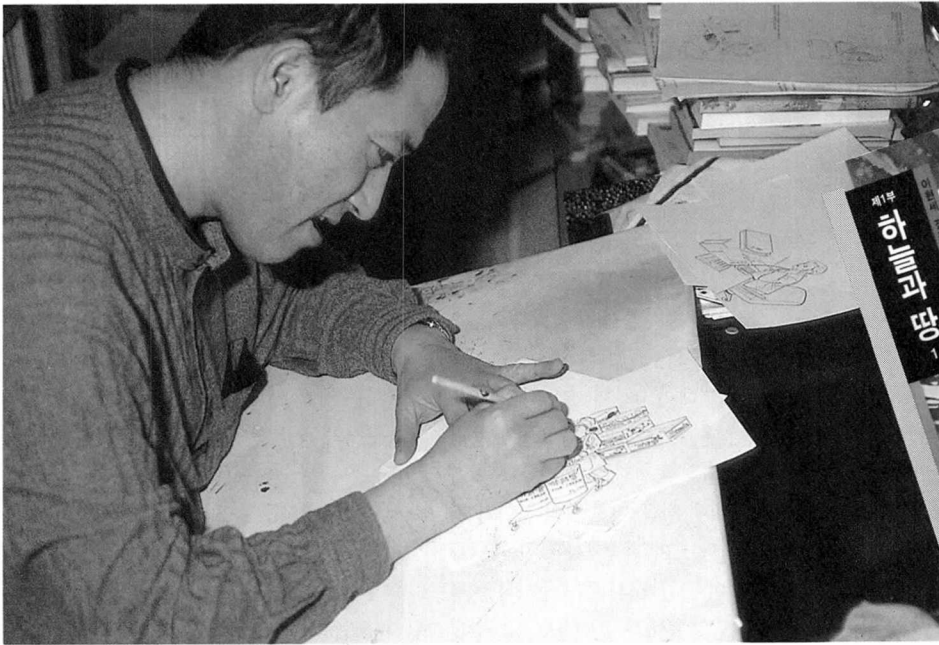


# 새로운 문화현상을 빛어내는 '마법의 손'

## 대하물 《천국의 신화》 펴내는 만화가 이현세씨의 작업실



어릴적 만화는 새로운 세계를 엿보는 보물창고였다. 이제 성인들에게 만화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끊임 없는 캐릭터의 창조로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에 도전해왔던 이현세씨(43)가 우리 역사의 창세기를 복원시키는 일에 도전했다. 고대 신화의 세계를 상상력으로 빛어내는 《천국의 신화》(해냄미디어)는 2001년쯤 100권짜리 시리즈로 마무리될 '장편 그림소설'이다.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의 눈빛 속에” 이 몽상가는 유물의 파편조차 희미한 상고의 진실을 펼쳐보일 야심을 품는다. 5년의 준비끝에 1부 3권을 먼저 선보인 이 작품은 단군 신화 이전 천지창조부터 고조선, 부족국가,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멸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재구성한다.

몇달전 새로 꾸민 작업실 서가엔 '역사 이전의 역사'를 찾기 위한 이현세씨의 마음이 묻어 있다. 늘 그랬듯이 이전 작품에서 조력자 노릇을 했던 책들은 잠실에 있는 집으로 옮기고, 작업실엔 새 작품에 상상력을 한껏 불어넣을 책과 자료들로 채워졌다. 이현세씨에게 책은 연금술을 위한 소중한 재료다.

땅이름 사람이름을 짓더라도 우리의 원형을 찾고 싶어 국어사전을 뒤적이는데, 가짓수가 열을 넘게 헤아린다. 상고에 뛰어들던 동물들을 재현하려면 온갖 동식물 도감을 찾아봐야 한다. 옷차림과 주거형태를 묘사하더라도 고건축 자료에서부터 인테리어 지식, 심지어 패션 잡지까지 동원된다. 한달 책 구입비가 엄청나지만 책사냥에 나서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웬만한 독서광보다 책에 대한 식견도 깊다. 다만



순수하게 '읽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대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역동적인 선과 거침없는 묘사,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성인대중을 매료시킨 이현세씨는 자기검열에도 엄격하다. 만화가 나이 50세이면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그림을 그리기에 한계에 이른다는 생각이다. 그리기에 더욱 이 대하물에 자신의 만화인생 전부를 걸고자 한다. 아득한 태고를 잡아내는 일이 더디기는 하겠지만 21세기에는 우리의 새로운 창세기가 한 '마법의 손'에서 빛어질 터이다.

— 김지원 기자

- ❶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자리한 이현세씨의 작업실은 다락방처럼 이뻐하다. 보통 오전 10시쯤 출근해 밤 늦도록 일한다. 온갖 책을 들춰보고 확인한 후에야 작업을 마무리하니 다른 이들보다 작업 속도가 느린 편이다.
- ❷ 작업실 서가 곳곳엔 새 작품을 위해 마련한 책들이 꽂혀 있다. 국어사전만 해도 국어학자마다 펴낸 《국어대사전》은 모두 갖췄고 《겨레말 갈래 큰사전》이나 《우리말 속담 큰사전》 같은 우리말 관련 사전이 10여 가지에 이른다.
- ❸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려면 인테리어 관련 책과 여행, 패션 등 박학한 최근 정보도 필요하다.
- ❹ 이현세씨는 자신의 작품이 지금까지 총 몇 종 정도나 되는지 얼마나 팔렸는지 모른다. 무심하다기보다 오히려 만화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몰두한 소년같은 순수함이 엿보인다.
- ❺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피곤을 잠깐 덜기 위한 간이침대도 놓아두었다. 밤 늦게 돌아가면 두 딸(고, 중1)과 아들(초등3)과 짧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한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비디오나 영화는 가족과 함께 즐긴다.

